

# 우울한 '코리안 데이'...김광현·양현종 나란히 '흔들'

김광현, 5이닝 4실점으로 팀 2-9 패배...애리조나 13연패 탈출 제물  
양현종도 시애틀전 3이닝 3실점 '패전'...두 선수 모두 시즌 3패째

올 시즌 두 번째로 성사된 '코리안 데이'는 우울하게 막을 내렸다.

나란히 선발 마운드에 오른 1988년 생 동갑내기 좌완 듀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나란히 패전의 멍에를 썼다.

김광현은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9피안타(1홈런) 1탈삼진 1볼넷 4실점으로 부진했다.

2-4로 끌려가던 6회 마운드를 내려간 김광현은 팀이 2-9로 저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3패째(1승)다.

양현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현종은 이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

그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이닝 5피안타 1볼넷 2탈삼진 3실점(2자책)을 기록했다.

0-3으로 뒤진 4회 교체된 양현종은 텍사스가 2-4로 패배해 역시 시즌 3패째를 떠안았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같은 날 선발 등판한 것은 올 시즌 두 번째다. 둘은 지난 6일에도 나란히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6일 벌어진 '코리안 데이'에서 김광현과 양현종은 모두 승리가 불발됐지만, 팀 승리에 발판을 놓는 호투를 선보였다. 김광현은 4이닝 1실점을 기록해 팀의 4-1 승리에 힘을 더했고, 양현종은 3½이닝 1실점 호투로 텍사스 3-1 승리를 도왔다.

이번 코리안 데이에서 김광현과 양현종은 모두 부진 탈출을 노렸다.

김광현은 1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3½이닝 4실점(1자책점), 25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5½이닝 3실점을 기록하고 잇따라 패배를 떠안았다.

선발진 진입을 이뤄낸 양현종도 26일 LA 에인절스전에서 3½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다.

김광현이 상대 애리조나는 최근 13연패로 부진의 늪에 빠져있었다.

양현종의 상대 팀인 시애틀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팀 타율(0.205)과 팀 출루율(0.281), 팀 OPS(출루율+장타율·0.644)에서 모두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팀이었다.

하지만 둘은 나란히 아쉬움을 남긴 채 마운드를 내려갔다.

김광현은 2회말 2사 후 니 아메드에 3루타를 얻어맞은 뒤 로카스트로



에게 직시타를 허용했다. 팀이 2-1로 앞선 3회에는 케텔 마르테에 동점 솔로포를 헌납했다.

4회는 더욱 아쉬웠다.

수비진의 실수성 플레이가 겹쳐진 2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에 몰린 김광현은 로카스트로를 삼진으로 잡고 급한 불을 끄는 듯 했다. 그러나 내야 땅볼과 볼넷으로 만들어진 2사 만루에서 마르테에게 2타점 역전 직시

타를 내줬다. 양현종은 1회말 2사 후 안타와 볼넷을 맞아 1, 2루의 위기를 자초했고, 타 이 프랑에게 좌전 적시 2루타를 허용해 첫 실점했다.

3회 카일 루이스를 중견수 아돌리스 가르시아의 실책으로 내보낸 양현종은 카일 시거의 안타 때 우익수 조이 갈로의 실책성 플레이가 겹치면서 1사 2, 3루에 몰렸다. 양현종은 프랑

에게 2타점 중전 직시타를 얻어맞았다.

둘 모두 아쉬운 투구를 하면서 한국인 메이저리거 동반 승리도 불발됐다. 지난해 9월 25일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이 나란히 승리투수가 돼 2005년 8월 25일 박찬호·서재용 이후 15년 만에 한국인 투수 동반 승리를 일군 바 있다.

뉴스

## 전남드래곤즈 U-18 광양제철고, K리그 유스 최강자 '우뚱'

협회장배 결승서 전북현대 U-18에 1-0으로 꺾고 우승



전남드래곤즈 U-18(광양제철고)이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남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후반 25분 터진 문승민의 결승골로 전북현대모터스 U-18(영생고)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K리그 신하 22개 유소년 팀들이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다시 한번 K리그 유스 최강자로 우뚱 서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 U-18은 2년 전인 2019년 열린 제40회 대회 결승전에서 전북 U-18을 상대로 1-2로 아쉽게 패배했다. 전남 U-18은 2년 후 열린 오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2년 만에 설욕에 성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전남 U-18은 GK 이진우(18) 앞에 조은수(6), 이상혁(5), 임선우(4), 이경현(11)이 백포 라인을 구축했고, 중원에는 박우진(7)과 이정욱(8), 2선에는 김승우(3), 문승민(10), 이도현(22), 최전방에는 박시언(9)이 원톱으로 출전하여 준결승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으로 출전했다.

5경기 전승으로 결승까지 올라온 전북 U-18 또한 라인업에 큰 변화없이 결승전에 임했다. (GK 김준호, DF 이우연-전주선-문건호-박창우, MF 이시후-동재민-강상윤, FW 엄승민-성진영-박재준)

경기는 초반부터 전남 U-18이 기선을 제압했다. 전반에서 FW 박시언과

MF 문승민이 패스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창출했고, 김승우와 이도현이 전북 U-18의 측면을 흔들었다. 전반 내내 밀리는 경기를 한 전북 U-18은 전반 26분 DF 문건호를 빼고 이준형을 투입하며 이른 시간에 교체체를 단행했다.

전반 36분 페널티 박스 바로 밖에서 문승민이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과음을 당하며 좋은 찬스를 맞았다. 그러나 준결승전에서 프리킥 골을 기록한 이경현의 찬 프리킥이 골문 왼쪽으로 살짝 빗나가며 아쉬움을 남겼고, 양 팀 모두 득점없이 0-0으로 전반이 종료되었다.

후반 들어 전북 U-18도 공격적으로 나섰다. 전북 U-18은 후반 8분 MF 이시후를 빼고 FW 이규동을 투입하며 공격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전남도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23분 이도현이 페널티 슈팅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나가며 코너킥을 얻었다. 후반 25분 그 코너킥을 이도현이 뒤에 있던 김승우에게 찰떡 내줬고, 김승우가 드리블 후 컷백으로 내준 볼을 문승민이 원터치로 슈팅하여 선제골을 기록했다.

동점골이 필요한 전북 U-18에게도 찬스가 찾아왔지만, 전남 U-18의 밀집수비를 뚫지 못하며 득점을 하지 못했다. 후반 30분 전북 U-18 박시언의 얼트크로스를 엄승민이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며 전북 U-18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 34분 전남 U-18도 MF 이정욱과 김승우를 빼고 DF 이윤형과 MF 정태인을 투입하며 수비라인을 강화했다.

문승민의 선제골을 잘 지켜낸 전남 U-18은 전북 U-18을 상대로 최종 스코어 1-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U-18은 2015년 U-18 챔피언십과 백운기 우승 이후 6년 만에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남 U-18은 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한 김현수 감독은 "대회기간 동안 지도자들의 준비와 잘 따라주는 선수들 덕분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동점, 역전을 기록하여 지지않으려고 하는 끈질김과 투혼이 돋보였다. 예선전에서 조2위로 올라와 12강, 8강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준결승과 결승에서 무실점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특히 더욱 기쁘다. 2015년 이후로 6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전남드래곤즈 유소년 부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포스코와 광양제철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우승 소감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팀의 주장이자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7번 MF 박우진도 "대회 준비부터 결승전까지 한 마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했는데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고, 전남 U-18이 원팀(One Team)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최우수선수상 받은 건 동료들이 잘 도와주고 힘이 되어줬기에 제가 팀을 대표해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독님 이하 코칭스태프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남겼다.

전남드래곤즈는 2003년 K리그 최조로 유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프로 산하에 광양제철남초-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동원, 김영욱, 이준호, 이유현, 한찬희 등 많은 프랜차이즈 스타를 배출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유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 U-18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다시 한 번 명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걱정이 불필요한 이정후...5월 타율 0.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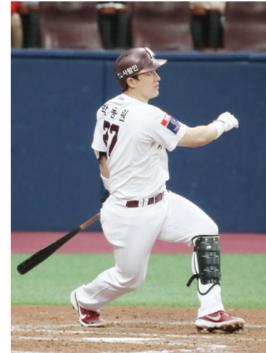
키움 박동원은 한 달 간 홈런 9개 폭발



기다리던 알아서 본인의 위치를 찾아가는 선수.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에게 매우 적합한 표현이다. 날이 풀리자 이정후가 살아났다. 이정후는 5월 타율 0.451(82타수 37안타)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데뷔 이후 4년 연속 3할2푼 이상의 고타율을 뽐낸 이정후는 4월 한 달 타율 0.269(93타수 25안타)에 그쳤다. 엄청난 부진은 아니었지만, 그 대상이 이정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춤한 이정후는 5월 들어 본인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다. NC 다이노스와의 첫 두 경기부터 멀티



히트를 감을 끌어올리더니 13일 두산 베어스전부터 19일 삼성 라이온즈전까지 6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불방망이를 뽐냈다.

5월 22경기에서 안타를 뽑아내지 못한 것은 세 경기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12경기에서는 멀티히트를 뽑아냈다.

타격왕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시즌 타율 0.354를 만든 이정후는 '유일한 4할 타자'인 강백호(KT·0.412)에 이어 타율 2위에 등극했다.

홈런에서 재미를 본 이는 박동원(키움)이다. 박동원은 5월에만 9개

의 타구를 담장 밖으로 보냈다. 팀 홈런(20개)의 50% 가량을 홀로 책임졌다.

이정후와 박동원이 타선을 쌍끌이 하면서 키움의 순위도 덩달아 상승했다. 한때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키움은 한 달 간 14승(9패)을 추가하면서 24승23패로 승률 5할 고지를 넘어섰다.

선발 투수 중에서는 KT 위즈 배제성과 오디리사며 테스파이네가 두각을 나타냈다. 두 선수는 나란히 3승1패씩을 쓸어담았다. 평균자책점은 배제성이 1.86으로 1위, 테스파이네가 1.91로 2위다.

소형준(1승2패 평균자책점 5.82)과 윌리엄 쿠에바스(1승2패 평균자책점 6.75)가 아직 예년의 페이스를 되찾지 못한 가운데 두 선수의 호투 속 KT는 시즌 2위(25승20패)로 순항 중이다.

가장 뜨거웠던 구원 투수는 오승환(삼성)이다. 오승환은 10이닝 비자책으로 8세이브(1패)를 따냈다. 8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1½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지만 나머지 경기는 뒷문을 잘 지켰다. 롯데전 3실점이 모두 비자책 처리 되면서 5월 평균자책점은 '0'이다.

뉴스

## 최경주, PGA챔피언스투어 시니어 챔피언십 공동 3위

체카, 8언더파 272타로 우승

최경주(51)가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메이저대회인 시니어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에서 공동 3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 컨트리클럽(파70·6968야드)에서 열린 키친에이드 시니어 PGA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3언더파 277타를 기록했다.

최경주는 계속 공동 2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18번 홀 보기로 준우승에 1타가 부족했다.

이로서 최경주는 레티프 구센(남아공)과 함께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도미니언 에너지 챔피언 클래식에서 공동 6위에 올랐던 최경주는 챔피언스 투어 진출 이후 최고 성적을 냈다.

대회 우승은 8언더파 272타를 친 알렉스 체카(독일)가 차지했다. 그는



최경주가 30일(현지시간) 미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키친에이드 시니어 PGA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6번 그린 라운딩을 마치고 갤러리에 인사하고 있다.

우승 상금 63만 달러(약 7억원)를 탔다.

이달 초 리전스 트레이디션에서 우승한 체카는 시니어 투어 2연승을 달렸다.

팀 퍼트러빅(미국)은 4언더파 276

타로 단독 2위를 기록했다.

챔피언스투어는 만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이 중 시니어 챔피언십은 5개 메이저대회 중 총상금 규모가 US시니어오픈(총상금 4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특급 대회다.

## KBO리그 거리두기 완화...4인까지 나란히 앉아 야구본다

야구장 내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최대 4인까지는 관람석에 나란히 앉을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1일 "야구장을 방문하는 팬들이 동행한 가족, 지인들과 최대 4명까지 나란히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

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상고수습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진행됐고 동행인간 좌석 연석 운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좌석 변경 운영은 고척스카이돔을 제외한 실외 경기장에서만 시행된다. 현행 사적 모임 인원 제

한 수에 따라 일행간 최대 4명씩만 허용된다.

연석 운영 여부와 일정은 팬 선호도와 상황에 따라 구단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단의 좌석 예매처에서 확인 가능하다.